

인쇄하기

닫기

백두산 화산폭발 전조현상 연구…부산대 특화센터 출범

기사입력 2018/05/02 14:30 송고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부산대 화산특화연구센터가 2일 현판식을 열고 본격 출범했다.

부산대 화산특화연구센터는 기상청 산하 한국기상산업기술원으로부터 앞으로 9년간 43억 원을 지원받아 백두산 화산의 전조 현상 등을 집중 연구한다.

백두산 화산분화 예측을 위해 한중 백두산 공동관측 장기연구를 진행한다.

이날 오전 열린 현판식에는 전호환 총장과 백두산 화산연구의 권위자인 윤성호 지구과학교육과 교수, 기상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윤 교수는 화산특화연구센터장을 맡았다.

부산대는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서 추진하는 '2018년도 기상·지진See-At기술개발연구 사업' 중 지진화산 분야 연구대학에 선정돼 이 센터를 설립했다.



화산특화연구센터 현판식

[부산대 제공=연합뉴스]

ljm703@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5/02 14:30 송고

본 기사는 연합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Yonhapnews. All rights reserved.